

*경배와 찬양	나는 예배자입니다 /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 마음의 예배 / 나 무엇과도 주님을	다같이
대표기도		이윤진
*성경봉독	민 9:15-23	김제니
말씀	현대 기독교인과 성막	김상범 목사
응답찬양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다같이
*봉헌		다같이
*봉헌기도		김상범 목사
광고 및 환영		안혜진
*파송찬양	교회여 일어나라	다같이
*축도		김상범 목사

*표시에서 일어서 주세요.

헌금안내

예배중 헌금 순서가 따로 없습니다. 준비하신 헌금은 예배실 입구의 헌금함에 넣어주시거나, venmo(@akpc-offering)로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응답찬양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 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도 덮어지게 하소서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 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가 선 이 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그 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 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현대 기독교인과 성막 (민 9:15-23)

15 성막을 세우던 날 구름이 성막, 곧 회막을 덮었습니다. 저녁부터 아침까지 구름이 성막 위에 불의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16 이 일이 계속됐습니다. 구름이 성막을 덮고 있었고 밤이 되면 불처럼 보였습니다. 17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머무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을 쳤습니다. 18 여호와와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자손이 길을 떠나고 여호와와 명령을 따라 진을 쳤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 그들은 진을 치고 머물렀습니다. 19 구름이 성막 위에 오랫동안 머무는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와의 지시에 순종해 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20 때로는 구름이 성막 위에 며칠만 머물 때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와 명령을 따라 진을 쳤고 여호와와 명령을 따라 길을 떠났습니다. 21 때로는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만 머물러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때 그들은 아침에 구름이 떠오르면 길을 떠났습니다. 낮이든 밤이든 구름이 움직이면 그들은 길을 떠났습니다. 22 이틀이고 한 달이고 1년이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르면 이스라엘 자손은 진에 머무르고 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구름이 떠오르면 그들은 길을 떠났습니다. 23 여호와와 명령을 따라 그들은 진을 치고 여호와와 명령을 따라 길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하신 여호와와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굉장히 독특한 관계를 형성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의 선한 왕이 되셔서 그들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고, 친히 그들 가운데 사시며, 인도해 가십니다. 오늘 주제가 '성막'은 이러한 **하나님과 주의 백성의 관계가 함축된 장소**였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막 중심의 삶'이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과거 이스라엘의 삶에 있어서 성막이 어떤 의미였는지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성막의 가장 큰 의미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출 25:8)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작고 초라한 성막에 친히 사시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이는 우리 인간에게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친히 성막에 거하시니 **성막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 되었습니다.** (출 40:34-35) 하나님이 성막에 거하시자 그 성막에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이 가득 찼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면 그 영광에 압도되어 죽고 맙니다. (예, 옷사)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성막을 통해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회막 대영 사신) 하나님이 성막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성막의 계보를 잇습니다. (마 16:18-19, 고전 3:16) 성막에는 성부 하나님이 친히 거주하셨다면, 교회는 성자 하나님이 그 머리가 되시고, 성령 하나님이 항상 내주하시고 계십니다. 따라서, 교회에는 성막과 동일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이 거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삶을 살아갔듯이, 21세기를 사는 우리는 '교회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교회를 우리 삶의 중심으로 살아가시나요? 삶의 거처를 정하실 때, 교회 공동체를 고려하여 정하는 것, 새 지역으로 이주하실 때 좋은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교회 중심의 삶의 중요한 실천 덕목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좋은 교회공동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성막의 두번째 의미는,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핵심 장소였습니다. (민 9:17, 22-23) 구름기둥은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입니다. 이 구름기둥에는 두 가지 중요한 역할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구름기둥이 사막의 낮의 뜨거움과 밤의 추위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성막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21세기에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속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구름기둥의 두번째 기능은 '인도하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기둥을 보고 가고 서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들을 인도하십니다. 새로운 직장을 구하거나, 새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 등등 중요한 인생의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교회를 통해 결정하는 태도는 복된 태도이자 성경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인도함 받으실 때 꼭 기억할 것은, **기다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기둥이 떠오르지 않으면 1년이든 2년이든 그 자리에서 그냥 머물렀습니다. 만약, 우리 삶에 구름기둥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대로 머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잘 받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막의 의미는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의 모임의 장소였습니다. (출 33:7) 성막을 회막이라고도 불렀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찾을 일이 생기면 회막으로 갔습니다. 그 곳에 있는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주의 말씀을 대변하였고, 아론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헌신을 약속하거나, 회개하거나, 감사하고자 할 때, 제사를 드려주었습니다. 그러면, 이 회막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이러한 회막의 역할은 오늘날 교회의 예배가 그 기능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배 때 또한 성직자를 통해서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죄를 회개하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예배가운데 우리를 다시금 영적으로 충만케 채우십니다. 따라서, 성막 중심의 삶이란, 오늘 날로 보면 '예배 중심의 삶'입니다.

또한, 회막은 사람과 사람이 모이는 장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막에서 모여서 서로 격려하기도 하고, 때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행동을 하면 그 행동을 징계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기능도 교회가 물려받았습니다. 교회는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예수님을 따라 살도록 격려하고, 권면하는 곳입니다. 만약, 우리 중에 성경적 가르침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사랑의 마음으로 그 분을 권면하는 것도 중요한 교회의 기능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삶을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보면 맑은 날만 있지 않습니다. 흐린 날도 많습니다. 그런데, 좋은 공동체 가운데 계신 분은 회복하는 시간이 빠릅니다. 주변에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본인도 다른 사람들에게서 좋은 영향력을 받으며 자연스럽게 회복됩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복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교회 중심의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깨닫고, 삶의 중심을 교회로 맞추는 복된 여려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묵상과 나눔을 위한 질문

1.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던 것을, 오늘날 교회 (건물이 아닌 모임)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서 이해할 수 있을까요?
2. 나는 내 삶의 중요한 결정들을 교회 공동체를 통해 결정하나요? 이를 위해 내가 새롭게 적용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3. 나는 교회 공동체의 모임을 통해서 영적 격려와 권면을 잘 주고받으시나요? 우리 공동체가 이를 더 잘 하려면 어떤 점을 개선해야 할까요?

설교말씀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교회 웹사이트 형편과 페이지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SCAN ME

파송찬양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훈 통해 (우릴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환영

AKPC 청년부 예배에 찾아 주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일 예배

주일 예배는 현장 예배와 실시간 YouTube 방송으로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배와 공동체성 회복을 위해 가급적 현장예배 참석을 권장드립니다.
마스크 착용은 자율 선택(optional)입니다.

김상범 목사 안수 및 취임

김상범 목사의 목사 안수 및 취임예배가 은혜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수고하시고 기도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새가족 환영회

7월 24일(주일) 청년 예배 후

2022년 수련회

기간 : 9월 2일(금)~4일(주일)

장소 : Camp Buckner (3835 FM 2342, Burnet, TX 78611)

목장 방학

목장모임은 6월말까지 하고 7, 8월엔 공식적인 목장모임은 쉽니다.
(7, 8월에도 현재의 목장은 유지합니다.)

주일 설교 질문지

주일 설교/신앙적 궁금증을 목사님께 질문할 수 있는 구글폼 링크가
교회 웹사이트 청년부란에 있습니다. (혹은 주보 QR코드를 이용)

목사님 심방

6~9월 동안 청년 전체를 대상으로
가능한 날짜, 시간을 링크를 통해 신청 (Zoom, 대면 심방 모두가능)

팀원 모집

새가족팀 (문의: 하지수), 찬양팀(문의: 김태동)
예배팀(음향, 문의: 신승윤, 박정호)

같이 걸어가기 (염평안, 조찬미, 임성규) 찬양 콘서트

7월 9일 (토) 오후 5시, 본당

생명의 삶 7월호 (권당 5분)

유치부 교사 모집

주일 11시 유치부예배와 말씀공부를 함께해주실 선생님을 찾습니다.

중고등부 교사 모집

한국어 성경공부 인도자 (1~2명)

일대일 제자 양육 동반자반 모집

양육기간 : 총 16주

7월 정기리더 모임

7월 3일(주일) 오후 4시

환송

김제니 자매 (졸업 후 대학원 진학)

새가족생분자 등록 카드
(교회 웹사이트 청년부 페이지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SCAN ME

PSALM

예배/모임

주일청년예배

주일 1pm

금요기도모임

금 7pm

청년목장

주중 또는 예배후

Good Morning 말씀산책

월-금 6:30am

토요무릎기도회

토 6:30am

제 50권 25호

JUN 26
2022

청년부를 섬기는 분들

신앙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담당목사

김상범

cptksb3@gmail.com

지도장로

김종환

jybella@utexas.edu

청년부에 첫방문이거나 라이드 또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로 연락주세요.

라이드 팀장

안혜진

anhyejin0714@gmail.com

새가족 팀장

하지수

jisujeon2015@gmail.com

양육과정안내

새가족교육

방문자 및 새신자들을 위한 2주간 새신자교육이 있습니다.
더 알아가고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일대일 제자양육

교회에 등록하신 모든 분들 대상으로 일대일 제자양육 교육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독교 기본영성과 큐티를 생활화 하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어스틴한인장로교회 청년부



12311 Natures Bend Austin, TX



512 454 1727 / fax - 512 454 6888



psalm@akpc.org



www.akpc.org



AKPC 청년부 | www.facebook.com/groups/akpc.psalm



@akpc_psalm | www.instagram.com/akpc_psalm